

설 명절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 늘어

농진청, 농식품 구매 행태 변화 조사... 차례용 농산물 구매 줄이고 선물 3~5만원대 선호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

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과일류는 사과(46.8%), 배(43.4%), 축산물에는 국내산 소고기 갈비(22.2%), 국내산 소고기 등심(14.8%) 순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일(32.0%), 축산물(25.4%) 모두 지난해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일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점 온라인몰을 찾겠다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 가격 절감(49.7%), '접근 편리함'(24.9%), '품질 향상'(15.5%) 등을 들었다.

차례용 농산물 구매는 줄이는 대신

가족들이 먹을 일반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설 명절에 평소보다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넉넉히 구매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자가 소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10명 중 약 6명은 '가족에게 선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선물 품목은 과일류(32.3%) 인기가 단연 높았고, 다음으로 축산물(15.6%), 현금(12.4%), 건강기능식품(11.6%), 한과·견과류(4.9%)가 차지했다.

지인에게는 10명 중 약 3명이 선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구매 품목은 과일(25.1%), 차 및 커피(12.7%), 통조림(8.2%), 건어물(6.6%), 건강기능식품

(6.3%) 순을 보였다.

선물용품 구매액은 3~5만 원대를 가장 선호했다. 소비자들은 가격과 선물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선물 품목을 고르겠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차례용·일반소비용 농산물 구매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선호했다. 선물용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산업경영학과 하두중 교수는 "차례용품 위주로 구매하던 전통적인 명절 농산물 소비가 가정 소비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20일 전주 라한호텔 1층 온고을홀에서 대표회원 및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건협 전북,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서 대표회원·내외빈 150여명 참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20일 전주 라한호텔 1층 온고을홀에서 대표회원 및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김경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도내 건설관련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임근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건설업 발전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내 전문건설인 가족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 "불안한 국제정세와 혼란한 국내 상황 등이 건설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지금의 어

려운 상황을 전문건설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회원사 모두의 마음과 힘을 결집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2025년 한해도 전문건설업역 보호 및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협회가 전문건설 재도약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를 포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옥기기자

전북은행, 2025년 상반기 시장 상황 대응 경영전략회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7일~18일 이틀간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영업전담,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경영성과 리뷰 및 2025년 경영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직원들과 공유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상반기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북은행만의 영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올해도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기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건전성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지역 기반 동반성장과 전북은행만의 핵심전략 추진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하나 된 원팀(ONE TEAM)을 이뤄내자"면서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상생경영 실천과 전북은행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저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시, 소상공 선결제로 착한 소비자 운동 시작

착한업소서 착한 소비자운동 시작 알리는 선결제·재방문 약속

정국 불안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착한 소비자 운동'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20일 효자동 인근 착한가 격업소인 서부원조떡집에서 우범기 시장과 임숙희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소비자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결제 및 재방문을 약속했다.

골목상권에 투입되는 현금의 시기를 앞당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착한 소비자 운동은 이날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추진된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체(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 먼저 결제하면, 자영업자는 결제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게 된다.

시는 착한 소비자 운동의 확산을 위해 이벤트도 연다.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착한 선결제(10만원~30만원이하)를 인증한 시민을 대상 추첨해 총 200만원(1인당 2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는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 및 제공 동의하고, 소상공인 업체를 활용한 선결제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된다.

이벤트 당첨 결과는 4차례(1.22~1.31./2.1~2.10./2.11~2.21./2.22~2.28.)에 걸쳐 모집 회차별로 구분해 발표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회복 시기를 앞당기는 촉매가 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농업소득 3천만원 건인...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 의지 다져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회장 이기성)는 20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정한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새농민회 임원 및 시군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회계 결산 및 202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발전을 위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13대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회장에는 前)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한강희 감사가 당선되었으며, 감사에는 前)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박기원 감사가 前)한국새농민 남원시회 장영두 회장이 당선되었다.

(사)한국새농민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이기성 회장은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본부장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새농민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0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가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작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두원 부행장은 "도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해 소상공인에 대한 필요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